

16/07/24(주) 주일예배 / 제목 : 구원에 이르는 길(마 7:21~29) p.10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신앙의 최종목적도 결국 구원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에 대해 예수님은 또 무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22~27절)** “마지막 날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에 대해 그들이 항의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구원받는 길인데 누구나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고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천국의 길, 즉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셔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란 ‘구원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분명히 구원의 완전조건이지만 그냥 말로만의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이 손님들을 향해 ‘사장님! 사모님!’ 하는 것은 손님들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 사장님으로 사모님으로 인정하는 말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셔야 한다.

### 2.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참 믿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되 믿음의 표가 분명히 삶에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 믿음은 마치 산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듯이, 등경위의 등불이 온 방안을 밝히듯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행동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도 달라지고 삶의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명확한 목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여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

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내용을 보십시오. (막 14: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처럼 천국백성은 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두 가지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직분이나 능력 발휘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의 요지는 자기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은 것 때문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의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에서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정신을 차려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나 능력을 발휘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위 직분이나 능력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그가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이 땅에서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실제로 그가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쫓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을 행하는 것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역시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능력을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음과 능력 행함은 결코 구원의 완전조건이 되지 못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더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인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삶으로서 불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버림받게 됩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선지자도 버림받고 능력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일에는 직분이나 능력 받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은 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인지 아니면 버림받을 사람처럼 사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를 드셨다시피 사람이 집을 아무리 수고해서 짓는다 해도 모래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말은 일에 ‘애를 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은 자에게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수고하고 애쓰되 온전하게 수고하고, 온전하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요? 24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고, 충성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억지로 행함으로써 과녁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에게 신앙이란 주님의 약속이라는 과녁에 정조준하여 자신의 삶을 명중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힘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시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신앙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런 순종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습니다. (히 5:8~9)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약정리** /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셔야 한다.
2.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